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16호 [루게 제25094호] 주제 104 (2015)년 11월 12일 (목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고 리을설동지의 장의식 엄숙히 거행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장의식에 참가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며 조선인민군 원수인 고 리을설동지의 장의식이 11일 평양에서 국장으로 엄숙히 거행되었다.

장의식장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장 충직한 혁명전사,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가장 친근한 혁명전우였으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혁명적신념과 의리로 받아들여온 항일의 로루사인 리을설원수동지를 잃은 커다란 비애에 잠겨있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장의식에 참가하시었다.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인 김영남동지, 황병서동지, 박봉주동지, 김기남동지, 박영식동지, 리영길동지, 김원홍동지, 김양건동지, 박범기동지, 오수용동지, 최부일동지, 로두철동지, 조연준동지와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국가장외위원회 성원들, 당, 무력, 정권기관, 내각 일군들, 고인의 유가족들이 장의식에 참가하였다.

항일혁명투사들인 황순희동지, 김철만동지, 박경숙동지, 리영숙동지가 여기에 참가하였다.

고인의 명구가 안치된 중앙로동자회관에는 조기가 드리워져있었다.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 군기들이 세워져있으며 명예위병들이 고인의 명구옆에 서있었다.

명구를 발인하는 의식이 진행되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려구발인에 앞서 고 리을설동지를 추모하여 련정에 묵상하시고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시었다.

고인의 유가족들, 국가장외위원회 성원들이 고 리을설동지를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추도곡이 장중하게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고인의 유가족들과 함께 리을설원수동지의 려구를 앞세우고 나오시었다.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명예의장대가 《명구에 들어 총!》을 하였다.

고인의 명구를 실은 장갑차는 모려찌를

의 호위를 받으며 대성산혁명렬사릉을 향하여 떠났다.

령구차가 지나는 수도의 거리들에는 우리 당의 충직한 호위전사이며 인민의 참된 아들인 리을설원수동지와 영결하기 위하여 모여온 수만명의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이 서있었다.

그들은 일련단심 당과 수령을 충직하게 받들어 선군혁명위업수행에 특출한 공적을 쌓아올린 귀중한 로혁명가인 리을설동지와 영결하는 크나큰 슬픔에 잠겨있었다.

장의행렬은 옥류교와 만수대거리, 보통문, 영웅거리, 비파거리를 통과하였다. 인민군장병들은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천만군민을 주체혁명위업의 계승 완성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한 고인의 생애를 가슴뜨겁게 추억하였다.

리을설원수동지는 항일대전의 간고한 시절부터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보위하여온 우리 혁명의 제1선 호위전사, 항일의 로루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사랑과 믿음속에 백두의 혁명정신을 체질화하며 견결한 혁명투사로 자라난 그는 무비의 용맹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사령부의 안녕을 지키고 수령결사옹위의 산모범을 보여주었다.

그는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의 신변안전

을 보위하는 책임적인 직무에서 사업하면서 안팎의 원수들의 악랄한 준동을 짓부셔버리었으며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 과 결탁한 미제의 공중 폭격과 압해책동으로부터 혁명과 조국의 운명을 결사수호하고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보장하는데 공헌하였다.

전후시기와 사회주의건설시기 그는 백두산시절과 다름없는 한모습, 한본새로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으로 옹위하였으며 우리 혁명무력을 무적필승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온갖 지혜와 정열을 다 바치었다.

리을설원수동지는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를 백두광명성으로 높이 만들어올리고 순결한 망심과 지성을 바쳐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명도를 충직하게 보좌하면서 인민군대안에 당의 유일적령군체계를 확고히 세우기 위한 투쟁에 뚜렷한 자욕을 남기었다.

그는 우리 혁명이 력사에 류폐없는 간고한 시련을 겪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에도 위대한 장군님을 제1선에서 호위하며 우리 당을 총대로 충직하게 받들고 위대한 장군님의 제일충신, 혁명전우, 참다운 혁명전사의 본분을 다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의 끝까지 혁명의 군복을 입고 당을 받들려는 전사의 소망을 헤아리시어 최고사령부의 중요직무도 맡겨주시고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었으며 우리 혁명의 원로로 내세워주시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었다.

2 번 으 로 계 속



고 리을설동지의 장의식 엄숙히 거행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장의식에 참가하시였다



1 번 에 서 계 속

우리 혁명의 1세, 항일의 로투사들을 제일로 아끼고 내세워주시며 로당익장 하도록 끝없는 활력을 부여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은정속에서 리을설원수동지는 선군혁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억세게 나아가는 계승자들의 대오에 수명결사용위정신, 조국수호정신을 깊이 심어주며 생을 빛나게 마무리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리을설원수동지를 잃은 비통한 심정을 안고 고인의 령구를 찾으시어 로혁명가의 삶을 최상의 경지에서 값높이 빛내어주시며 투사가 지녔던 충실성과 혁명적신념을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군인들,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소중히 새겨주시였다.

인민군장병들은 크나큰 비애에 잠겨 우리 인민군대를 혁명의 수뇌부결사용위

정신으로 만장약된 백두산혁명강군, 선군혁명의 주력군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 한생을 다 바친 고인과 영결하였다.

각계층 근로자들도 한생을 언제나 변심 없이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진심으로 따랐으며 자기 수명, 자기 명도자를 어떻게 모시고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실천적모범으로 보여준 리을설원수동지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시하였다.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오랜 기간 헌신적으로 투쟁하여 온 로혁명가를 잃은 애석한 마음을 금할수 없어 거리를 오가던 시민들도 가던 길을 멈추고 고인의 령구를 바래왔으며 리을설원수동지의 령구를 실은 장갑차는 통통네거리, 버드나무거리, 문덕거리를 서서히 지나갔다.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은 항일의 로투사의 숭고한 모범을 본받아

죽어도 버리지 않을 혁명신념을 간직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이 땅위에 부강하고 번영하는 사회주의강성 국가를 반드시 일떠세우고야말 결의를 다짐하였다.

령구를 실은 장갑차는 대성산혁명렬사릉에 도착하였다.

고 리을설동지의 반신상이 세워져있는 대성산혁명렬사릉에는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명예 의장대가 정렬해있었다.

영결식이 엄숙히 거행되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영결식에 참가하시였다.

국가장의위원회 성원들, 고인의 유가족들, 당, 무력, 정권기관, 내각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애국가가 주악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가 애도사를 하였다.

추도곡이 주악되고 조총이 발사되는 가운데 고인의 유해가 안치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그렇게도 념원하던 강성국가건설위업의 승리와 조국통일의 날을 보지 못한채 애석하게도 우리곁을 떠난 리을설원수동지에 대한 복받치는 애도의 정을 안으시고 군대의 책임일군들, 유가족들과 함께 고인의 유해에 흠을 없으시였다.

화환진정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인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존함을 모신 화환이 리을설원수동지의 반신상에 진정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일편단심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받들어 열혈의 충정을 다하여온 고 리을설동지를 추모하여 목상하시였다.

국가장의위원회 성원들, 고인의 유가족들, 당, 무력, 정권기관, 내각 일군들이 고인을 추모하여 목상하였다.

리을설원수동지는 비록 심장의 고통을 멈추었으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한생을 바친 혁명렬사를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며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세운 투사의 고귀한 업적은 길이 빛날 것이다.

본사정치보도반



고 리을설동지의 장의식 엄숙히 거행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장의식에 참가하시었다



애 도 사

오늘 우리는 커다란 슬픔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장 충직한 혁명전사,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친근한 혁명전우였으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혁명적신념과 의리로 받아들여온 우리 혁명의 제1세 호위전사, 항일의 로투사인 리을설원수동지와 영결하게 됩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백두산에서 항일성전에 참가한 그날로부터 혁명의 년대와 년대를 이어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복무의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온 리을설원수동지는 그 명도자였던 강성국가건설위업의 승리와 조국통일의 날을 보지 못한채 실장의 고통을 멈추고 애써하게도 우리곁을 떠났습니다.

리을설원수동지와 영결하게 되는 이 시각 우리들은 일련단심 당과 수령을 충직하게 받들어 선군혁명위업수행에 특출한 공적을 쌓아올린 귀중한 로혁명가를 잃은 슬픔을 감할수 없으며 복받치는 애도의 정을 누를수 없습니다.

리을설원수동지의 생애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육천적사랑과 세심한 보살피심속에서 참다운 혁명가로 자라나 가장 값높은 삶을 누려온 고귀한 한평생이었으며 수령보위의 제1선초소에서 백육같은 충정을 바쳐온 총대투사의 빛나는 한평생이었습니다.

일제식민지통치의 암담한 시기 식민지망국노의 비참한 처지에서 헤매이던 리을설동지는 1937년 여름 어린 나이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끄시는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대전의 불길속에서 풀갈한 소년혁명가들을 키워내실 숭고한 뜻을 안시고 소년총대를 조직하여주시였으며 리을설동지를 비롯한 소년총대원들을 친부모도 들수 없는 위대한 사랑으로 돌보아주시였었습니다.

간고한 행군길에서 험한 장애물이 나서면 몸소 업어 건너지주시고 총탄이 비발치는 전장에서 한몸으로 감싸안아 보호해주신 친어머니사랑, 손에 연필을 쥐여주시고 가가거거를 배워주시고 때로는 엄한 꾸중도 하시며 혁명의 철리를 심어주시신 위대한 스승의 손길이 있어 리을설동지는 혁명적수행관을 체질화한 열혈투사로, 높은 군사적자질과 능숙한 정치공작방법을 소유한 항일명장으로 지라날수 있었습니다.

리을설동지는 사령부 전령병으로서 높은 책임성과 혁명적경각성으로 호위사업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아슬아슬한 위기의 순간에는 기관총을 들고 적들속에 뛰어들어 무비의 용맹과 희생성을 발휘함으로써 사령부의 안녕을 지키고 수령결사옹위의 산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소부대활동의 나날에도 동지는 무전수로서 사령관동지의 의도를 결사판결하였으며 일제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격멸소탕하고 조국해방의 승리를 이룩하는데 공헌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해방후 저택에 리을설동지의 숙소를 정해주시고 부관으로 임명해주시였으며 동지의 생활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돌보아주시고 몸소 봉나물잔치상도 차려주시면서 혁명업무에 충실하도록 격려했을 손잡아 이끌어주시었습니다.

리을설동지는 아버지수령님과 김정숙동지께서는 해방후 저택에 리을설동지의 숙소를 정해주시고 부관으로 임명해주시였으며 동지의 생활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돌보아주시고 몸소 봉나물잔치상도 차려주시면서 혁명업무에 충실하도록 격려했을 손잡아 이끌어주시었습니다.

리을설동지는 아버지수령님과 김정숙동지께서는 해방후 저택에 리을설동지의 숙소를 정해주시고 부관으로 임명해주시였으며 동지의 생활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돌보아주시고 몸소 봉나물잔치상도 차려주시면서 혁명업무에 충실하도록 격려했을 손잡아 이끌어주시었습니다.

에 보답할 일념을 안고 미제의 무력침공을 분쇄하며 조국과 혁명의 운명을 수호하기 위한 준엄한 투쟁에서 무비의 용맹을 떨쳐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명전에 다진 맹세를 충직하게 지켰습니다.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과 결탁한 미제의 악랄한 폭격으로 최고사령부 가까이 떨어진 시한탄을 죽음의 각오하고 목도도 날라 제거한 결사전에 대한 이야기와 우리 혁명역사의 갈피갈피에 새겨진 리을설동지의 영웅적인 위훈담들은 오늘날도 만사람의 심장을 울리고 있습니다.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을 졸업하고 조선인민군 변함부대, 대원함부대의 책임직인 위치에서 사임하던 나날에도 리을설동지는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으로 융위하며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로신을 관철하는 길에서 언제나 백두산시절과 다름없는 한 모습, 한 본색이었습니다.

수령앞에서 항상 솔직하고 고지식한 자세로 전사의 본분을 다하여온 리을설동지를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시면서 주실수 있는 온갖 은정과 배려를 다 들려주시었습니다.

리을설은 일찌기 부모의 슬하를 떠나 한생을 자신의 길에서 살아오면서 무장으로 당을 보위해왔다고, 지나가나 자기수행만을 생각하고 수령의 건강과 신변안전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친 진짜배기혁명가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값높은 평가는 동지가 항일의 로투사로 당의정착하여서 영웅적한생을 더욱 빛내일수 있게 한 고귀한 활력소로 되었습니다.

백두산일여시절부터 위대한 장군님을 백두광명성으로 높이 받아들여올리며 순결한 망심과 지성을 바쳐온 리을설동지는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명도를 충직하게 보좌하면서 인민군데안에 유일적명군체계를 확고히 세우고 우리 혁명무력을 무적필승의 백두산혁명강군의 명전에 다진 맹세를 충직하게 지켰습니다.

리을설동지는 혁명의 수도 평양을 보위하는 군부대와 호위부대의 책임임군으로 내정된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정치적신임을 심장에 새기고 군인들을 항일무장투쟁시기와 조국해방전쟁시기 친위전사들의 충실성의 전통을 계승한 수령결사옹위투사로 키우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기울이였으며 준엄한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조국수호와 부강조국건설위업을 진두에서 명도하시어 위대한 장군님의 안녕을 지켜드리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였습니다.

리을설사령관은 인생의 유년기도, 인생의 청춘기도, 인생의 로년에도 당과 수령에게 충직해온 혁명선배이라고, 수령님과 자신께서 걱정하는 문제를 모두 풀어준 애국자라고 하시면서 조선인민군 원수칭호를 안겨주시어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본인도 알지 못한 병상대를 헤아려보시고 다 른 나라에 보내어 수술을 받도록 하여주시였으며 떠날 때에는 물론 돌아올 때에도 몸소 비행장에 나가서 뜨거운 정을 부어주시었습니다.

자신과 함께 혁명을 더 오래 하자면 건강을 돌보아야 한다고 하시며 동지의 건강회복을 위하여 온갖 대책을 세워주시고 최고사령부의 중요직무를 맡겨주시어 위대한 장군님의 극진한 보살피심이 있었기에 리을설원수동지는 불치의 병으로 진단받은 때로부터 근 20년간 군복을 벗지 않고 당을 받드는 길에서 총대전사의 한 생을 빛내일수 있었습니다.

리을설원수동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품속에서 혁명전사가 받아안을수 있는 최상의 영광과 행복을 다 누

렸으며 오늘은 값높은 영생의 언덕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랑과 정을 그대로 이어서 원수동지의 건강과 생활, 가정생활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일일이 헤아려주시고 다 풀어주시였으며 원수동지가 올린 소박한 편지들도 빠짐없이 보아주시고 친필서한까지 보내주시는 크나큰 믿음과 영광을 안겨주시었습니다.

함으로 리을설원수동지는 백두산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따사로온 품에 안긴 그날로부터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당과 수령의 품속에서 혁명전사의 가장 값높은 삶을 누려왔으며 세상을 떠난 후에도 당과 인민의 추억속에 영생하는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명도에 의하여 우리 당과 공화국의 존엄과 위용이 만방에 펼쳐지고 혁명의 앞길에 전례없는 최진성기가 펼쳐지고있는 때에 리을설원수동지와 같은 로혁명가를 잃은것은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크나큰 손실로 됩니다.

우리는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한생을 바친 리을설원수동지를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며 원수동지가 받들어 수행결사옹위의 모범을 따라배워 위원이 되시어 장의행사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으며 전군에 조기를 띄울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시고 동지의 유해를 대성산혁명렬사릉에 안치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리을설원수동지의 명전에 자신의 명의로 된 화환을 보내주시고 명구를 찾아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시며 일련단심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받들어 열렬의 충정을 다하시어



어은 원수동지에 대하여 값높은 평가를 주시었습니다.

리을설원수동지가 받아안은 김일성총장과 김정일총장, 공화국2중영웅칭호와 로력영웅칭호를 비롯한 많은 훈장과 표창들은 당과 혁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풀어주시였으며 원수동지가 올린 소박한 편지들도 빠짐없이 보아주시고 친필서한까지 보내주시는 크나큰 믿음과 영광을 안겨주시었습니다.

함으로 리을설원수동지는 백두산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따사로온 품에 안긴 그날로부터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당과 수령의 품속에서 혁명전사의 가장 값높은 삶을 누려왔으며 세상을 떠난 후에도 당과 인민의 추억속에 영생하는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명도에 의하여 우리 당과 공화국의 존엄과 위용이 만방에 펼쳐지고 혁명의 앞길에 전례없는 최진성기가 펼쳐지고있는 때에 리을설원수동지와 같은 로혁명가를 잃은것은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크나큰 손실로 됩니다.

우리는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한생을 바친 리을설원수동지를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며 원수동지가 받들어 수행결사옹위의 모범을 따라배워 위원이 되시어 장의행사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으며 전군에 조기를 띄울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시고 동지의 유해를 대성산혁명렬사릉에 안치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리을설원수동지의 명전에 자신의 명의로 된 화환을 보내주시고 명구를 찾아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시며 일련단심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받들어 열렬의 충정을 다하시어

제 2 차 전 국 녀 맹 초 급 일 군 열 성 자 대 회 진 행

제2차 전국녀맹초급일군열성자대회 11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민주여성동맹창립 70돐을 맞아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는 지난 기간 녀맹초급조직강화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분석총화하고 녀맹동맹을 우리 당의 선군혁명위업을 역성세 계를 넘어가는 믿음직한 방조자로 강화발전시키는데 나서는 파업과 방도들을 토의하였다.

대회에는 당의 사상과 명도들을 높이 받들고 녀맹초급조직들을 당의 유일적령도체제가 확고히 선 사상적 순결제, 조직적일체제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특출한 모범을 보인 녀맹초급일군들을 비롯한 녀맹일군들과 관세부분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인민동화공연 대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병동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항도자 조선로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구호가 대회장에 나붙어있었다.

대회장은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빛내이는 녀맹동맹가 되자!>, <모든 녀맹초급조직들을 수령철사옹위의 결정체로 만들자!>라는 구호가 나붙어있었다.

리일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녀맹중앙위원회, 관세부분 일군들, 모범적인 녀맹일군들과 초급일군들이 주석단에 자리잡았다. <김일성동지의 노래>와 <김정일동지의 노래>주요곡에 대회는 시작되었다. 대회에서는 김정은 녀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적 건설을 명도하시는 전기간 녀맹동맹사업에서 초급조직들을 강화하는 문제에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시고 기층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고 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일찍이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혁명적녀맹조직건설의 고귀한 전통을 마려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제34(1945)년 11월 18일 주제회의 대동적녀맹혁명조직인 조선민주여성동맹을 창립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광범한 애국녀성들을 굳게 묶어세우기 위해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신 항일의 녀맹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평소 평양시 동구 선교리(당시)를 비롯한 여러곳을 찾으신이 녀맹기층조직을 튼튼히 꾸밀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새 민주조선건설을 녀맹인들을 이끄셨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해대 대하여>, <강성대국건설대에서 주체의 조선녀성운동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더욱 빛내어나가자!>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저작들을 발표하시어 녀맹기층조직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파업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 동맹이 초급단체를 도와주자!>라는 혁명적구호에 각급 녀맹위원회들과 모든 녀맹일군들이 초급단체사업을 정상적으로 실시할데 도와주며 녀맹동맹을 통하여 기층조직들의 전투적역할을 보장하는 임무를 맡아주시었다. 녀맹초급일군들은 당의 핵심력량, 초급정치일군으로 내세워주시어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전당대회와 전국녀맹초급일군열성자대회의 등을 마려내주시어 주실수 있는 사명을 다 돌려주시었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전국녀맹에술소조종합동언을 몸소 보이주시고 녀맹동맹이 선군시대의 힘있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어 애비장군님의 자로운 영상을 친만년세월이 흐르도록 잊을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주체적인 녀맹동맹건설사상과 불멸의 업적은 오늘 당에 있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빛나게 계승되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적령도체제를 더욱 철저히 세우자!>, <혁명적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를 비롯한 불후의 저작들을 발표하시어 녀맹동맹이 사상공세전선의 사명감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갈수 있는 강령적지침을 마려내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당의 선군혁명명도를 받들어 수십년간 초급일군으로 목욕히 일해왔으며 원군미풍

을 높이 발휘한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나날이 울렁울렁이 우리 녀맹원들을 믿는다는 최상의 평가를 안겨주시었다. 보고자는 질세워일들의 따듯한 보살핌속에 제1차 전국녀맹초급일군 열성자대회의가 있는 때로부터 지난 10여년간 녀맹동맹과 녀맹초급조직들이 대동적녀맹정치조직으로서의 본분을 훌륭히 수행하여온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녀맹초급조직들의 사업에서 이룩된 모든 성과들은 녀맹동맹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손잡고 이끌어주시어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대동적녀맹정치조직으로서의 본분을 훌륭히 수행하여온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녀맹초급조직들의 사업에서 이룩된 모든 성과들은 녀맹동맹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손잡고 이끌어주시어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대동적녀맹정치조직으로서의 본분을 훌륭히 수행하여온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나라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의 다함없는 호도와 열화같은 충성의 마음을 담아 조선민주녀맹동맹의 창립자이시며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하고 열렬한 경의를 드리고 녀맹동맹을 통하여 기층조직들의 전투적역할을 보장하는 임무를 맡아주시었다. 녀맹초급일군들은 당의 핵심력량, 초급정치일군으로 내세워주시어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전당대회와 전국녀맹초급일군열성자대회의 등을 마려내주시어 주실수 있는 사명을 다 돌려주시었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전국녀맹에술소조종합동언을 몸소 보이주시고 녀맹동맹이 선군시대의 힘있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어 애비장군님의 자로운 영상을 친만년세월이 흐르도록 잊을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주체적인 녀맹동맹건설사상과 불멸의 업적은 오늘 당에 있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빛나게 계승되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적령도체제를 더욱 철저히 세우자!>, <혁명적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를 비롯한 불후의 저작들을 발표하시어 녀맹동맹이 사상공세전선의 사명감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갈수 있는 강령적지침을 마려내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당의 선군혁명명도를 받들어 수십년간 초급일군으로 목욕히 일해왔으며 원군미풍

을 높이 발휘한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나날이 울렁울렁이 우리 녀맹원들을 믿는다는 최상의 평가를 안겨주시었다. 보고자는 질세워일들의 따듯한 보살핌속에 제1차 전국녀맹초급일군 열성자대회의가 있는 때로부터 지난 10여년간 녀맹동맹과 녀맹초급조직들이 대동적녀맹정치조직으로서의 본분을 훌륭히 수행하여온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녀맹초급조직들의 사업에서 이룩된 모든 성과들은 녀맹동맹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손잡고 이끌어주시어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대동적녀맹정치조직으로서의 본분을 훌륭히 수행하여온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녀맹초급조직들의 사업에서 이룩된 모든 성과들은 녀맹동맹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손잡고 이끌어주시어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대동적녀맹정치조직으로서의 본분을 훌륭히 수행하여온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나라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의 다함없는 호도와 열화같은 충성의 마음을 담아 조선민주녀맹동맹의 창립자이시며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하고 열렬한 경의를 드리고 녀맹동맹을 통하여 기층조직들의 전투적역할을 보장하는 임무를 맡아주시었다. 녀맹초급일군들은 당의 핵심력량, 초급정치일군으로 내세워주시어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전당대회와 전국녀맹초급일군열성자대회의 등을 마려내주시어 주실수 있는 사명을 다 돌려주시었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전국녀맹에술소조종합동언을 몸소 보이주시고 녀맹동맹이 선군시대의 힘있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어 애비장군님의 자로운 영상을 친만년세월이 흐르도록 잊을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주체적인 녀맹동맹건설사상과 불멸의 업적은 오늘 당에 있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빛나게 계승되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적령도체제를 더욱 철저히 세우자!>, <혁명적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를 비롯한 불후의 저작들을 발표하시어 녀맹동맹이 사상공세전선의 사명감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갈수 있는 강령적지침을 마려내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당의 선군혁명명도를 받들어 수십년간 초급일군으로 목욕히 일해왔으며 원군미풍

을 높이 발휘한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나날이 울렁울렁이 우리 녀맹원들을 믿는다는 최상의 평가를 안겨주시었다. 보고자는 질세워일들의 따듯한 보살핌속에 제1차 전국녀맹초급일군 열성자대회의가 있는 때로부터 지난 10여년간 녀맹동맹과 녀맹초급조직들이 대동적녀맹정치조직으로서의 본분을 훌륭히 수행하여온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녀맹초급조직들의 사업에서 이룩된 모든 성과들은 녀맹동맹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손잡고 이끌어주시어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대동적녀맹정치조직으로서의 본분을 훌륭히 수행하여온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녀맹초급조직들의 사업에서 이룩된 모든 성과들은 녀맹동맹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손잡고 이끌어주시어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대동적녀맹정치조직으로서의 본분을 훌륭히 수행하여온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나라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의 다함없는 호도와 열화같은 충성의 마음을 담아 조선민주녀맹동맹의 창립자이시며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하고 열렬한 경의를 드리고 녀맹동맹을 통하여 기층조직들의 전투적역할을 보장하는 임무를 맡아주시었다. 녀맹초급일군들은 당의 핵심력량, 초급정치일군으로 내세워주시어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전당대회와 전국녀맹초급일군열성자대회의 등을 마려내주시어 주실수 있는 사명을 다 돌려주시었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전국녀맹에술소조종합동언을 몸소 보이주시고 녀맹동맹이 선군시대의 힘있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어 애비장군님의 자로운 영상을 친만년세월이 흐르도록 잊을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주체적인 녀맹동맹건설사상과 불멸의 업적은 오늘 당에 있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빛나게 계승되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적령도체제를 더욱 철저히 세우자!>, <혁명적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를 비롯한 불후의 저작들을 발표하시어 녀맹동맹이 사상공세전선의 사명감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갈수 있는 강령적지침을 마려내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당의 선군혁명명도를 받들어 수십년간 초급일군으로 목욕히 일해왔으며 원군미풍

을 높이 발휘한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나날이 울렁울렁이 우리 녀맹원들을 믿는다는 최상의 평가를 안겨주시었다. 보고자는 질세워일들의 따듯한 보살핌속에 제1차 전국녀맹초급일군 열성자대회의가 있는 때로부터 지난 10여년간 녀맹동맹과 녀맹초급조직들이 대동적녀맹정치조직으로서의 본분을 훌륭히 수행하여온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녀맹초급조직들의 사업에서 이룩된 모든 성과들은 녀맹동맹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손잡고 이끌어주시어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대동적녀맹정치조직으로서의 본분을 훌륭히 수행하여온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녀맹초급조직들의 사업에서 이룩된 모든 성과들은 녀맹동맹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손잡고 이끌어주시어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대동적녀맹정치조직으로서의 본분을 훌륭히 수행하여온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나라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의 다함없는 호도와 열화같은 충성의 마음을 담아 조선민주녀맹동맹의 창립자이시며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하고 열렬한 경의를 드리고 녀맹동맹을 통하여 기층조직들의 전투적역할을 보장하는 임무를 맡아주시었다. 녀맹초급일군들은 당의 핵심력량, 초급정치일군으로 내세워주시어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전당대회와 전국녀맹초급일군열성자대회의 등을 마려내주시어 주실수 있는 사명을 다 돌려주시었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전국녀맹에술소조종합동언을 몸소 보이주시고 녀맹동맹이 선군시대의 힘있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어 애비장군님의 자로운 영상을 친만년세월이 흐르도록 잊을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주체적인 녀맹동맹건설사상과 불멸의 업적은 오늘 당에 있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빛나게 계승되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적령도체제를 더욱 철저히 세우자!>, <혁명적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를 비롯한 불후의 저작들을 발표하시어 녀맹동맹이 사상공세전선의 사명감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갈수 있는 강령적지침을 마려내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당의 선군혁명명도를 받들어 수십년간 초급일군으로 목욕히 일해왔으며 원군미풍

을 높이 발휘한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나날이 울렁울렁이 우리 녀맹원들을 믿는다는 최상의 평가를 안겨주시었다. 보고자는 질세워일들의 따듯한 보살핌속에 제1차 전국녀맹초급일군 열성자대회의가 있는 때로부터 지난 10여년간 녀맹동맹과 녀맹초급조직들이 대동적녀맹정치조직으로서의 본분을 훌륭히 수행하여온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와 같이 제시한 5대교양을 참신하게 벌리며 녀맹해설대활동, 예술선진단체활동을 비롯한 모든 선진적봉사활동을 최선적으로 진행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녀맹초급조직들에서 오늘의 총공격전으로 모든 녀맹원들을 조직동원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며 그들이 녀맹동맹활동과 좋은일하기 운동에 적극 참가하여 조국의 부강번영에 참가케 해야 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녀맹초급조직들이 당의 크나큰 신뢰와 기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사업에서 결사투쟁의 실천력, 인민에 대한 헌신적봉무정신을 발휘함으로써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지향한 녀맹사업성과를 맞이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대회에서는 이어 토론들이 진행되었다. 리선진 선봉지구 녀맹위원장 현현, 연산군 읍청동당 초급녀맹위원장 홍용경은 메넌에 없는 복귀와 근로물도 생산을 판기리하는 위급한 정황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초상화를 결사봉우하고 전진지대에 준진신상례를 흐르던 8월의 나날에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연구와 생산활동에 전사옹위의 선봉을 쌓은 영남녀맹원들의 가슴마다에 간직된 것은 수령철사옹위의 길에서 살아도 영망, 죽어도 영망이라는 결성의 신념이었다고 말하였다.

향애남도 녀맹위원장 리성숙, 초급녀맹위원장장문강, 장문강 삼동리 리영숙, 강계시 약하동 김명숙, 창진시 수남구역 청년동맹위원장 신의주, 남상동 백영순은 질세워일들의 불멸의 명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길이 빛내이기 위한 사업을 제일차적인 사업으로 돌리고 모범단위창조운동을 힘있게 벌려 녀맹초급조직들을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조직으로 꾸려온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단정의 녀인으로서 용감해야 할 일을 한 63살 난 자기에게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원들의 영예를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같은 믿음을 격정을 더한 덕천별리며 녀맹해설대활동, 예술선진단체활동을 비롯한 모든 선진적봉사활동을 최선적으로 진행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녀맹초급조직들에서 오늘의 총공격전으로 모든 녀맹원들을 조직동원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며 그들이 녀맹동맹활동과 좋은일하기 운동에 적극 참가하여 조국의 부강번영에 참가케 해야 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녀맹초급조직들이 당의 크나큰 신뢰와 기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사업에서 결사투쟁의 실천력, 인민에 대한 헌신적봉무정신을 발휘함으로써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지향한 녀맹사업성과를 맞이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대회에서는 이어 토론들이 진행되었다. 리선진 선봉지구 녀맹위원장 현현, 연산군 읍청동당 초급녀맹위원장 홍용경은 메넌에 없는 복귀와 근로물도 생산을 판기리하는 위급한 정황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초상화를 결사봉우하고 전진지대에 준진신상례를 흐르던 8월의 나날에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연구와 생산활동에 전사옹위의 선봉을 쌓은 영남녀맹원들의 가슴마다에 간직된 것은 수령철사옹위의 길에서 살아도 영망, 죽어도 영망이라는 결성의 신념이었다고 말하였다.

향애남도 녀맹위원장 리성숙, 초급녀맹위원장장문강, 장문강 삼동리 리영숙, 강계시 약하동 김명숙, 창진시 수남구역 청년동맹위원장 신의주, 남상동 백영순은 질세워일들의 불멸의 명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길이 빛내이기 위한 사업을 제일차적인 사업으로 돌리고 모범단위창조운동을 힘있게 벌려 녀맹초급조직들을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조직으로 꾸려온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단정의 녀인으로서 용감해야 할 일을 한 63살 난 자기에게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원들의 영예를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같은 믿음을 격정을 더한 덕천별리며 녀맹해설대활동, 예술선진단체활동을 비롯한 모든 선진적봉사활동을 최선적으로 진행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녀맹초급조직들에서 오늘의 총공격전으로 모든 녀맹원들을 조직동원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며 그들이 녀맹동맹활동과 좋은일하기 운동에 적극 참가하여 조국의 부강번영에 참가케 해야 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녀맹초급조직들이 당의 크나큰 신뢰와 기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사업에서 결사투쟁의 실천력, 인민에 대한 헌신적봉무정신을 발휘함으로써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지향한 녀맹사업성과를 맞이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대회에서는 이어 토론들이 진행되었다. 리선진 선봉지구 녀맹위원장 현현, 연산군 읍청동당 초급녀맹위원장 홍용경은 메넌에 없는 복귀와 근로물도 생산을 판기리하는 위급한 정황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초상화를 결사봉우하고 전진지대에 준진신상례를 흐르던 8월의 나날에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연구와 생산활동에 전사옹위의 선봉을 쌓은 영남녀맹원들의 가슴마다에 간직된 것은 수령철사옹위의 길에서 살아도 영망, 죽어도 영망이라는 결성의 신념이었다고 말하였다.

향애남도 녀맹위원장 리성숙, 초급녀맹위원장장문강, 장문강 삼동리 리영숙, 강계시 약하동 김명숙, 창진시 수남구역 청년동맹위원장 신의주, 남상동 백영순은 질세워일들의 불멸의 명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길이 빛내이기 위한 사업을 제일차적인 사업으로 돌리고 모범단위창조운동

를 다함없이 대하여 말하였다. 토론들에서는 녀맹초급일군들이 녀맹원들을 위한 조직사업창조도를 바로하지 못하고 자기 단위사업을 출세 이끌어가지 못하고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언급되었다. 토론자들은 모든 녀맹일군들이 초급조직들을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것이 녀맹동맹강화의 첫걸음으로, 기본과로 된다는것을 명심하고 녀맹원들을 위해 열사봉무정신으로 녀맹일군들이 되고자 열렬히 호소한 평양에유현 초급단위위원장 김해영,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한 오늘의 남강마을녀성들로 준비해나갈것을 결의한 원수님의 높은 평가를 받은 영망을 안고 흥취난 남천로동지구 초급단위위원장 윤순애, 은산군 마장리 초급단위위원장 김명숙이 대변연단에 나섰다.

삼지연군 녀맹위원장 최숙은은 백두의 혁명전진,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녀맹동맹에서 헌신하는 조국수호동맹의 앞장에서 전향단위의 영예를 받없이 떨쳐나갈데 대하여, 선진군 서원리 초급녀맹위원장 류인순은 반세기교양대의 도수를 높이 녀맹원들이 계급투쟁의 교본과 전력을 배워 새기도록 하데 대하여 토론하였다.

말씀같은 믿음을 격정을 더한 덕천별리며 녀맹해설대활동, 예술선진단체활동을 비롯한 모든 선진적봉사활동을 최선적으로 진행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녀맹초급조직들에서 오늘의 총공격전으로 모든 녀맹원들을 조직동원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며 그들이 녀맹동맹활동과 좋은일하기 운동에 적극 참가하여 조국의 부강번영에 참가케 해야 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녀맹초급조직들이 당의 크나큰 신뢰와 기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사업에서 결사투쟁의 실천력, 인민에 대한 헌신적봉무정신을 발휘함으로써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지향한 녀맹사업성과를 맞이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대회에서는 이어 토론들이 진행되었다. 리선진 선봉지구 녀맹위원장 현현, 연산군 읍청동당 초급녀맹위원장 홍용경은 메넌에 없는 복귀와 근로물도 생산을 판기리하는 위급한 정황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초상화를 결사봉우하고 전진지대에 준진신상례를 흐르던 8월의 나날에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연구와 생산활동에 전사옹위의 선봉을 쌓은 영남녀맹원들의 가슴마다에 간직된 것은 수령철사옹위의 길에서 살아도 영망, 죽어도 영망이라는 결성의 신념이었다고 말하였다.

향애남도 녀맹위원장 리성숙, 초급녀맹위원장장문강, 장문강 삼동리 리영숙, 강계시 약하동 김명숙, 창진시 수남구역 청년동맹위원장 신의주, 남상동 백영순은 질세워일들의 불멸의 명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길이 빛내이기 위한 사업을 제일차적인 사업으로 돌리고 모범단위창조운동

을 다함없이 대하여 말하였다. 토론들에서는 녀맹초급일군들이 녀맹원들을 위한 조직사업창조도를 바로하지 못하고 자기 단위사업을 출세 이끌어가지 못하고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언급되었다. 토론자들은 모든 녀맹일군들이 초급조직들을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것이 녀맹동맹강화의 첫걸음으로, 기본과로 된다는것을 명심하고 녀맹원들을 위해 열사봉무정신으로 녀맹일군들이 되고자 열렬히 호소한 평양에유현 초급단위위원장 김해영,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한 오늘의 남강마을녀성들로 준비해나갈것을 결의한 원수님의 높은 평가를 받은 영망을 안고 흥취난 남천로동지구 초급단위위원장 윤순애, 은산군 마장리 초급단위위원장 김명숙이 대변연단에 나섰다.

삼지연군 녀맹위원장 최숙은은은 백두의 혁명전진,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녀맹동맹에서 헌신하는 조국수호동맹의 앞장에서 전향단위의 영예를 받없이 떨쳐나갈데 대하여, 선진군 서원리 초급녀맹위원장 류인순은 반세기교양대의 도수를 높이 녀맹원들이 계급투쟁의 교본과 전력을 배워 새기도록 하데 대하여 토론하였다.

말씀같은 믿음을 격정을 더한 덕천별리며 녀맹해설대활동, 예술선진단체활동을 비롯한 모든 선진적봉사활동을 최선적으로 진행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녀맹초급조직들에서 오늘의 총공격전으로 모든 녀맹원들을 조직동원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며 그들이 녀맹동맹활동과 좋은일하기 운동에 적극 참가하여 조국의 부강번영에 참가케 해야 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제26차 전국프로그램경연 및 전시회 개막

제26차 전국프로그램경연 및 전시회 개막되었다. 경연 및 전시회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훈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공강, 기업소들의 CNC화, 무인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정에서 개발된 1200여건의 우리식 조적제작용용프로그램들이 출품되었다.

프로그램들은 전문가부류와 비전문가부류로 나뉘어 조적제 및 보안, 인공지능 및 조선어 정보처리, 생산공정 CNC화과파 등 17개 분야별로 전시되었다.

그 가운데는 공정조종프로그램과 요소, 장치들 그리고 당의 제어국제전실구상을 실현하며 세계 교육혁명의 불길을 지져올리는데 이바지할수 있는 프로그램들, 평양강방이공공강장을 비롯한 여러 공강, 기업소들과 섬, 중앙기관들에서 자체의 힘으로 자기 단위의 정보화 수준을 한단계 높이 올려세울 성과자료들이 들어있다. 전시회 기간 내역프로그램, 체육경기의분석프로그램, 컴퓨터시원제프로그램 등이 벌어지게 된다. 개막식이 11일 3대혁명전시

관에서 있었다. 김용진내각부총리, 최상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김승두 교육위원회 위원장, 장철국과파학원 원장, 관세부분 일군들, 프로그램개발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개막사를 전경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부위원장이 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과학기술의 힘으로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두말한 과학성공과 부강조국을 건설에 이바지하는 참된 애국자가 되도록 세심히 보살펴주시고 이 이끌어주시는 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번 경연 및 전시회기간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를 다그치며 강성국가건설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계기로 되어야 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시회장 들 돌아다

다들스기 제1부총참모장을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방방무력 총참모부대표단 성원들과 알렉세이 바르부프 부 로씨야방방 대사관 무관들이 참가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조로 두 나라 군대들사이의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해서

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반영한 수습건의 논문들을 제출하였다. 발표자들은 핵무산, 공강산업을 비롯한 명승지들을 원상대로 보존관리하고 천연기념물로 등록한 동식물들을 보호증식시키는 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소개하였다. <국전-공산계의 국보적 가치와 보호증식에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 <용문대굴에 형성된 백석물길의 조성>에 대한 연구, <조선전쟁사료(우암물계)>, <천연기념물(시해잡은거울새살이더)>에서 조류의 종구성과 분포에 대한 연구, <용문대굴이 리론실천적의 큰조끼>로 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명승지 공강산업의 식물다양성 보호>와 <관리에 대한 연구>, <인시점교류사발전이 백두동화석보호구역에서 가지는 의의> 등도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발표회에서는 해당한 시상이 있었다. 【조선중앙통신】

크나큰 믿음을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녀맹사업에 헌신하고있는 각지 녀맹초급일군들

들의 3중모범초급단체로, 초급위원회는 총성의 2중, 1,7 모범초급위원회로 자리매김 되었다. 순천지구청년단파한기업소들, 초급녀맹위원장 최환은은은 녀맹동맹사업에서 헌신하는 조국수호동맹의 앞장에서 전향단위의 영예를 받없이 떨쳐나갈데 대하여, 선진군 서원리 초급녀맹위원장 류인순은 반세기교양대의 도수를 높이 녀맹원들이 계급투쟁의 교본과 전력을 배워 새기도록 하데 대하여 토론하였다.

말씀같은 믿음을 격정을 더한 덕천별리며 녀맹해설대활동, 예술선진단체활동을 비롯한 모든 선진적봉사활동을 최선적으로 진행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녀맹초급조직들에서 오늘의 총공격전으로 모든 녀맹원들을 조직동원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며 그들이 녀맹동맹활동과 좋은일하기 운동에 적극 참가하여 조국의 부강번영에 참가케 해야 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녀맹초급조직들이 당의 크나큰 신뢰와 기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사업에서 결사투쟁의 실천력, 인민에 대한 헌신적봉무정신을 발휘함으로써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지향한 녀맹사업성과를 맞이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대회에서는 이어 토론들이 진행되었다. 리선진 선봉지구 녀맹위원장 현현, 연산군 읍청동당 초급녀맹위원장 홍용경은 메넌에 없는 복귀와 근로물도 생산을 판기리하는 위급한 정황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초상화를 결사봉우하고 전진지대에 준진신상례를 흐르던 8월의 나날에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연구와 생산활동에 전사옹위의 선봉을 쌓은 영남녀맹원들의 가슴마다에 간직된 것은 수령철사옹위의 길에서 살아도 영망, 죽어도 영망이라는 결성의 신념이었다고 말하였다.

뵈스까독립절에 즈음한

연주회 진행

뵈스까독립절에 즈음한 뵈스까연주회 11일 김전주연주회 음악합창대학 음악당에서 진행되었다. 연주회장에는 우리 나라와 뵈스까가발이 세워져있었다. 연주회를 중선동 외부성 부장, 김진범 문화성 부장, 김경화 총공 추창자, 김진범 대외문화협력위원회 부위원장, 관계부분 일군들, 예술교육기관 교원, 학생들과 크쉬슈포르 케벤 주조

말씀같은 믿음을 격정을 더한 덕천별리며 녀맹해설대활동, 예술선진단체활동을 비롯한 모든 선진적봉사활동을 최선적으로 진행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녀맹초급조직들에서 오늘의 총공격전으로 모든 녀맹원들을 조직동원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며 그들이 녀맹동맹활동과 좋은일하기 운동에 적극 참가하여 조국의 부강번영에 참가케 해야 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녀맹초급조직들이 당의 크나큰 신뢰와 기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사업에서 결사투쟁의 실천력, 인민에 대한 헌신적봉무정신을 발휘함으로써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지향한 녀맹사업성과를 맞이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대회에서는 이어 토론들이 진행되었다. 리선진 선봉지구 녀맹위원장 현현, 연산군 읍청동당 초급녀맹위원장 홍용경은 메넌에 없는 복귀와 근로물도 생산을 판기리하는 위급한 정황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초상화를 결사봉우하고 전진지대에 준진신상례를 흐르던 8월의 나날에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연구와 생산활동에 전사옹위의 선봉을 쌓은 영남녀맹원들의 가슴마다에 간직된 것은 수령철사옹위의 길에서 살아도 영망, 죽어도 영망이라는 결성의 신념이었다고 말하였다.

독자의 권리

12년 전을 뵈수가 영애군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후 많은 사람들이 저의 가정을 친혈육의 정을 다해 위해주고있습니

다들스기 제1부총참모장을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방방무력 총참모부대표단 성원들과 알렉세이 바르부프 부 로씨야방방 대사관 무관들이 참가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조로 두 나라 군대들사이의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해서

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반영한 수습건의 논문들을 제출하였다. 발표자들은 핵무산, 공강산업을 비롯한 명승지들을 원상대로 보존관리하고 천연기념물로 등록한 동식물들을 보호증식시키는 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소개하였다. <국전-공산계의 국보적 가치와 보호증식에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 <용문대굴에 형성된 백석물길의 조성>에 대한 연구, <조선전쟁사료(우암물계)>, <천연기념물(시해잡은거울새살이더)>에서 조류의 종구성과 분포에 대한 연구, <용문대굴이 리론실천적의 큰조끼>로 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명승지 공강산업의 식물다양성 보호>와 <관리에 대한 연구>, <인시점교류사발전이 백두동화석보호구역에서 가지는 의의> 등도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발표회에서는 해당한 시상이 있었다. 【조선중앙통신】

말씀같은 믿음을 격정을 더한 덕천별리며 녀맹해설대활동, 예술선진단체활동을 비롯한 모든 선진적봉사활동을 최선적으로 진행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녀맹초급조직들에서 오늘의 총공격전으로 모든 녀맹원들을 조직동원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며 그들이 녀맹동맹활동과 좋은일하기 운동에 적극 참가하여 조국의 부강번영에 참가케 해야 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녀맹초급조직들이 당의 크나큰 신뢰와 기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사업에서 결사투쟁의 실천력, 인민에 대한 헌신적봉무정신을 발휘

값 높은 삶의 뿌리 — 순결한 량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집단주의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함으로써 개인의 리익보다 인민의 리익, 사회와 집단의 리익을 더 귀중히 여기며 고귀한 사회정치적 생명을 빛내여나가지 않아야 한다.》

어떤 생을 두고 값 높은 삶이라고 말하는것인가?

그에 대한 명백한 대답을 주는 모습들이 있다.

김정숙영양장비공장의 문강순동무는 실천적모범으로 신인공들의 기쁨을 높여주며 집단을 계획한수혜로 이끈 시대의 기사이다. 작업반들이 계획을 하면 직장이 계획되고 직장이 계획을 하게 되면 공장이 계획을 하며 우리 모두가 년간계획한수혜가 되면 인민생활항상적 적극이바지 할수 있다는것이, 이것이 집단의 영예속에서 자기의 행복을 찾는 그의 깨끗한 량심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참된 애국자로 온 나라 인민앞에 새겨주신 선전군도시설사업소 조종기 강동명동무는 사회주의 경탄을 저어내는 영웅적소행이나 위훈의 주인공은 아니다.

지금까지 그가 한 일이 있다면 누가 보지 못할, 알아 주진 못할 목욕이 맡은 일을 함으로써, 헌신적으로 해온 그것이다.

그가 어떻게 되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아시고 온 나라 인민의 존경과 믿음속에 사는 그런 값 높은 삶을 누리게 되었는가.

삶의 높이와 굽은 여에서 무는 일을 하는가에 따라 오르내리지는 않는다. 그 인생이 사회와 집단에 얼마만큼 필요 한가를 하는데 따라 결정된다.

연제인가 작업반에 갔던 한 인이 수십년동안 도로관리원으로서 일해온 강동명동무의 경력에 놀라 이렇게 물은적이 있었다.

《어머니는 저니사일에 당 원의 영예를 지녔고 얼마든지 편안한 일에서 일할수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되어 30여년을 도로관리원으로 일해오셨습니까?》

그때 강동명동무는 그에게 답해주었다.

《사람이란 각자가 사회와 집단앞에 지닌 자기 몫이 있는 대로, 과학자는 연구성과로, 용해공은 강철중심으로, 농장원은 중요한 가을로 그리고 우리는 도로를 더 잘 관리하는

것으로 나라를 받들지.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가 조국을 지키는 전선같이어서 총을 들고 지켰더니, 수학적 지라의 막장같이 동남나무로 지켰나. 량심으로 지켜야 해. 량심을 지키는 길이 곧 길에 대한 사랑이지. 도로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해.》

이 말을 통해서 자기 일터, 조국을 지키는 길에 언제나 순결하고 깨끗한 량심을 비추어 가는 그의 고결한 정신세계를 엿볼수 있다.

그는 수십년을 하루와 같이 도로를 쓸고 또 쓸었다. 출근길에 오면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길을 계속하라고, 그들이 보람찬 일에서 혁신과 위훈의 주인공들로서 자랑스러우기를 바라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도로에 자기의 량심을 엮고 헌신의 구슬땀을 아끼없이 뿌려왔다.

《나날 강동명동무는 언제나 작업반원들의 맨 앞장서 있었으며 헌신, 친여머니의 심정으로 그들의 생활을 보살펴주었다. 물이 불똥하여 지는데 누운 작업반원의 머리맡에서 밤을 지새는 사람도 다 있고 자연재해로 집채를 다 잃은 작업반원에게 집에 건사했던 가정용품과 식량까지 남김

없이 통째로 안겨준 사람도 바로 강동명동무였다.

이렇게 날과 달이 흐르는 속에 선전군 읍지구의 도로를 몰라보게 변모되어 갔으며 나아진 소년단원으로 자라나고 있는 길에 이르러 그 세대의 리익보다 사회와 집단의 리익을 더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헌신하는 데서 삶의 더없는 궁극의 행복을 찾는 집단주의적덕을 지닌 사람들이었다.

사람은 하루를 살도 값 있고 보람있게 살아야 한다. 오려 산다고 하여 보람찬 삶이 아니고 안락한 누림과 화려한 행복한 삶이 아니다. 사람의 삶이 값 있는것이 있어 사회발전,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무엇인가 기여하는바가 있고 남기는것이 있어야 한다.

혁명의 길에서 값 높은 삶의 자욱을 뚜렷이 새겨주고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총신하게 살도록 곁길들을 다잡아주고 도덕적행동에 적극 추종하

는것이 순결한 량심이다.

순결한 량심,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고귀한 정신적재부이며 값 높은 삶의 뿌리가 아니겠는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많은 돈과 재산이 자식들에게 물려 줄 가장 큰 재부로 되고있으며 돈을 위해서는 량심도 서슴없이 버려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하고있는데로써 비록 페루 배역이 만연되고있다.

하지만 우리의 사회주의사회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수십년세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기 일터를 깨끗한 량심과 아낌없는 헌신으로 지켜온 사람들이 누구나 따라배우고 본받아 할 시대의 전행으로 진주 보석처럼 빛을 뿌리며 값 높은 삶의 최정점에 오르고있다.

누가 보지 못할, 알아주진 못할!

바로 이것이 우리 시대 인공들의 가슴에 간직된 소중한 량심의 지창이고 목표이다.

순결한 량심과 불같은 헌신으로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억척같이 떠맡아나가는 값 높은 삶의 주인공들, 도덕의 강자들이 남을 따라 줄기만하고 있는 우리 조국의 앞날은 꽃같이 밝고 창창하다.

본사기자 조경철

아름다운 생활, 꽃피는 미래의 향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선배들에 대한 도덕적리를 지키는것은 우리 혁명의 전통이며 우리 사회의 고상한 도덕기풍입니다.》

본사편집으로는 날마다 아름다운 소행의 주인공들을 소개해줄것을 요청

하는 편지들이 전국각지에서 끊임없이 오고있다.

온 나라가 하나의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 우리 나라에서 날로 꽃피어나는 가지가지의 감동적인 소행들을 전하는 수많은 편지들은 그대로 이 땅 그 어디에서나 넘쳐나는 미덕의 향기이다.

다. 어느해 겨울에는 눈이 많이 내리 자전거로도 갈수 없어 걸어서 갔다온적이 있었다. 해마다 가을이 되면 매향도 넉넉하게 마련해 주고 쌀이 바릴 때면 집에서 정성껏 지은 보양식까지 한두마디의 말로 다 전해줄수 있겠다.

비록 서로 사는 곳은 떨어져있어도 전행로병의 마음속가까이에는 언제나 김육원동무가 있었다.

다. 어느해 겨울에는 눈이 많이 내리 자전거로도 갈수 없어 걸어서 갔다온적이 있었다. 해마다 가을이 되면 매향도 넉넉하게 마련해 주고 쌀이 바릴 때면 집에서 정성껏 지은 보양식까지 한두마디의 말로 다 전해줄수 있겠다.

비록 서로 사는 곳은 떨어져있어도 전행로병의 마음속가까이에는 언제나 김육원동무가 있었다.

언제나 마음속 가까이

김취시 신행에서 금취 동자라는 수필리었다.

하지만 신행에서 살고 있는 김육원동무와 금취 동에서 살고있는 전행로병 김취시동무는 서로 친형처럼 가까이 지낸다.

지금으로부터 8년전 어느날 중학교에 다니던 아들로부터 김취시동무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김육원동무는 마음을 진정할수

가 없었다. 그의 시아버지도 전행로병이었다. 그래서 인자 김취시동무에게는 얼굴도 모르는 김취시동무인 아들로부터 김취시동무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 그는 아들과 함께 전행로병의 집을 찾아가고있다.

해벌이 뻥뻥 내려오는 여름에도, 눈보라가 세차게 몰아치는 겨울에도 김취시동무의 발걸음은 계속되었

로만 여기고 귀여워했다. 그러나 여기 김취시동무를 대하는 용이 다르다는것을 알고는 무척 놀랐다.

연제인가 작업반원들의 집을 찾은 김취시동무는 평양정형학을 갔다가 가지고 온것이라고 하면서 지평이 한개를 내놓는것이였다.

《알아보지, 성의로 알고 받아서십시오.》

수필 김취시동무는 뜻밖의 일로 한쪽다리를 잘 수 없었다.

본사기자 조경철

고상한 노력기풍을 확립하여 사회주의혁명투쟁전선을 앞당기자

훌륭한 생활의 거울

지난 10월 21일 오후 5시 30분 단편리야를 댄 한 학생이 자기 동무를 통해 얻고 정친 구역인민병원으로 달려갔다.

《의사선생님, 우리 학급 학업동무가 갑자기 배가 아파 그렇습니다. 어서 파주시킵시다.》

철철 흘러내리는 땀방울을 훔칠념도 안하고 자기 동무의 병치료를 부랴부랴 소년단원인, 그는 평안북도 강선초급중학교 3학년 안인영학생이

모습에 그의 부모의 마음이 비껴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람의 성장에서 가장 교양이 짙우 중요하합니다.》

가정교육은 학교교육, 사회교육의 기초로 되어 사람을 교양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사람들에게 대한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며 여기서 부모됨이 맡고있는 역할은 자못 크다.

인영의 부모인 조선인민내무군 공관 안장봉동무와 그의 아내 리금화동무는 자식들을 키우며 언제나 이것을 잊지 않았다.

그들부부는 자식들에게 동무들을 사랑하고 웃어른들을 존경하며 나라를 위한 좋은 일을 찾아야 함으로써 어른이 되어서도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훌륭한 사람이 될수 있다고 늘 이룩 하였다.

하지만 이것을 말로만 외우지 말고 실천하는것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받았던 안인영은, 10여년동안 인민대학명사직자를 더 잘 꾸리는데 온갖 지성을 다 바쳐 위해 헌신한 어머니의 메모와 온정을 받아안고던 언제나 동지들과 집단을 먼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배우신영웅전선발전소 건설장을 찾으신듯하게 사는 모습들이 비껴있었다.

위훈을 새로운 시대로 값높이 빛나게 살아가고 있는 안인영은, 어머니께 우리도 고상한 생활기풍을 기르도록 가르치신 기억을 회상하며 헌신하는 아버지와 어머니께 고맙고 감사하며 해주신 마음으로 지극하며 최선적인데서 일당백의 용량을 떨쳐가는 군인적생활자를 원할 목적으로 원호한 어머니의 모습을 선형하고 인영이는 사자기처럼 새겨졌다.

부모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것을 명심하고 일상생활에서 어떤 자식들의 모범이 되고 거울이 되었은 그들 부부의 마음을 따라 자식들은 동무들의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여기고 읽는 동무들의 학습방조를 위해 밤에도 흔든한것을 하고 자기 고집과 학도를 꾸리는데 필요한 일을 스스로 찾아다니고 하였다. 학습에서는 최우등생으로, 동무들사이에 우애심이 높기로 소문이 났다.

이러한 자식들의 가슴속에 위대한 수령님들을 깊이 받들고 보며 사는 태도가 비껴있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인영은 자기가 사색을 부끄러워하며, 남의 말을 경솔히 믿고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고백하였다.

그날의 피침은 곡성이 지금도 들리는것만 같았다.

미제와 계급적분자들에게 의하여 신년경 52일간 3만 5300여명이 무참히 학살되었다.

미제살인자들은 학살판에서 800여명의 주민들을 100m가 넘는 깊은 수직갱속에 산대로 던져넣고서 쇠돌가루로 생매장했다.

전쟁전 1인1대방자총의 모범 선수가였던 강우식 선형은 어떤 세 딸과 함께 때때로 미제에게 끌려갔으며 어는 한 작업장이 모범노동자라고 하여 끝없이 세워놓은 작업장으로 가슴을 꿰어넣는 살인귀족만행을 저질렀다.

제2차 세계대전시기 전인성과 야수성이 있어서 세상을 정악한 히틀러독재자들이 현대과학기술을 동용하여 공업적방법으로 대량학살을 감행했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미제 총을 낚은 불행 살인만행을 저지른 미제놈들이야말로 히틀러독재자를 훨씬 능가하는 야만의 무리이며 정신착란증에 걸린 두발가진 송냥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이런 추악한 살인만행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맑은 곧 사람이다. 사람의 사상감정 기조와 취미는 모두 맑음 통하여 표현되며 그의 직업과 지식도, 문화도덕수준도 맑아서 그대로 나타난다.》

사람들은 생활과정에 자주 거울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비추어보곤 한다. 아름다운 외모를 지향하는 심리로 하여...

하지만 인간의 아름다운 외모는 결코 겉모양에만 있는것이 아니다. 사람의 인격이 가장 정복적으로 표현되는것은 다음이다.

그리고 인간의 언어인양, 우리는 얼마전 조선에서 국장으로 사업하고있는 어느 한 일꾼을 잠깐 만났던 일이 있었다.

《예, 제가 김호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서 여기 앉으십시오.》

초면이었지만 무척 친절하고 각근하여 첫 대면부터 존경이 가는 일꾼이었다.

무엇 첫 인상이 중요하듯이 말도 첫 인상이 깊은 여운을 남기는 법이다.

우리는 김호복동무와 다년간 함께 사업한 한 일꾼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의 고상한 인격에 대하여 더 깊이 느

겨주 있었다.

《국장동무는 옷사람을 대할 때나 아래사람을 대할 때나 한본색로 겹은하고 메의있게 대해곤 합니다. 이때단위로 지도사업을 나가서도 큰소리를 치거나 쓸데없이 말을 늘어놓는것은 도덕수양이 낮거나 실무능력이 부족한 표현이라고 강요하면서 일꾼들이 늘 언어생활에 깊은 주의를 돌려

결수 있었다.

《옷사람은 옷사람을 대할 때나 아래사람을 대할 때나 한본색로 겹은하고 메의있게 대해곤 합니다. 이때단위로 지도사업을 나가서도 큰소리를 치거나 쓸데없이 말을 늘어놓는것은 도덕수양이 낮거나 실무능력이 부족한 표현이라고 강요하면서 일꾼들이 늘 언어생활에 깊은 주의를 돌려

결수 있었다.

《옷사람은 옷사람을 대할 때나 아래사람을 대할 때나 한본색로 겹은하고 메의있게 대해곤 합니다. 이때단위로 지도사업을 나가서도 큰소리를 치거나 쓸데없이 말을 늘어놓는것은 도덕수양이 낮거나 실무능력이 부족한 표현이라고 강요하면서 일꾼들이 늘 언어생활에 깊은 주의를 돌려

결수 있었다.》

본사기자 조경철

언어생활과 높은 인격수양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선배들에 대한 도덕적리를 지키는것은 우리 혁명의 전통이며 우리 사회의 고상한 도덕기풍입니다.》

본사편집으로는 날마다 아름다운 소행의 주인공들을 소개해줄것을 요청

하는 편지들이 전국각지에서 끊임없이 오고있다.

온 나라가 하나의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 우리 나라에서 날로 꽃피어나는 가지가지의 감동적인 소행들을 전하는 수많은 편지들은 그대로 이 땅 그 어디에서나 넘쳐나는 미덕의 향기이다.

다. 어느해 겨울에는 눈이 많이 내리 자전거로도 갈수 없어 걸어서 갔다온적이 있었다. 해마다 가을이 되면 매향도 넉넉하게 마련해 주고 쌀이 바릴 때면 집에서 정성껏 지은 보양식까지 한두마디의 말로 다 전해줄수 있겠다.

비록 서로 사는 곳은 떨어져있어도 전행로병의 마음속가까이에는 언제나 김육원동무가 있었다.

나이는 어려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선배들에 대한 도덕적리를 지키는것은 우리 혁명의 전통이며 우리 사회의 고상한 도덕기풍입니다.》

본사편집으로는 날마다 아름다운 소행의 주인공들을 소개해줄것을 요청

하는 편지들이 전국각지에서 끊임없이 오고있다.

온 나라가 하나의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 우리 나라에서 날로 꽃피어나는 가지가지의 감동적인 소행들을 전하는 수많은 편지들은 그대로 이 땅 그 어디에서나 넘쳐나는 미덕의 향기이다.

다. 어느해 겨울에는 눈이 많이 내리 자전거로도 갈수 없어 걸어서 갔다온적이 있었다. 해마다 가을이 되면 매향도 넉넉하게 마련해 주고 쌀이 바릴 때면 집에서 정성껏 지은 보양식까지 한두마디의 말로 다 전해줄수 있겠다.

비록 서로 사는 곳은 떨어져있어도 전행로병의 마음속가까이에는 언제나 김육원동무가 있었다.

한시도 늦출수 없고 한순간도 소홀히 할수 없는것이 반제계급교양이다

심장에 안고 사는 분노의 웨침 — 기어이 복수하리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광화국을 앞설 하려는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책동이 더욱 강화되고있는 오늘이 현실은 인민들에게서 계급교양을 그 어느때보다 더 더욱 강화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습니다.》

10월의 경국광장에 승리의 속포성을 높이 울린 그 기세로 또다시 맞이할 더 큰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아직도 오늘도 변함없이 끓어번지고있는 날갯죽지 미제에 대한 피타는 적개심.

순간도 있고 살수 없는 계급 적분, 날이 갈수록 더해지는 철학적 미제에 대한 사무치는 분노를 안고 중앙계급교양판을 찾은 우리는 반미교양판의 전진장으로 들어섰다.

철학인 《서민》호의 모형과 남연군보도공사전에 대한 사진자료들을 비롯하여 배수신년전부터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과 학살을 감행하여온 미제의 만행을 폭로하여온 전진물들을 보면서 백년속적 미제에 대한 증오로 가슴속이 부풀어 오르는 반미교양판의 전진장으로 들어섰다.

《복도의 인간증오사상과 반동적인 인종증오로 결여된 미제침략자들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인간의 두뇌를 가지고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치명적인 만행을 감행하였습니 다.》

신진군을 비롯하여 공화국 북부지방의 일상적적정지역에서 미제의 학살만행에 대한 감상의 해설은 참관자들의 피를 끓게 했다.

산 사람의 머리엔 대못을 박고 사지를 찢어죽이는 동미제는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고 차마 눈뜨고 볼수 없는 야수적인 방법으로 인민들을 학살하였으므로 그것을 페락으로 하였다.

살인귀들에게는 천부지런이름도 《적》이었다고 하면서 장사선원리 반나무꾼 회악상

이러한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우리는 참관자들과 함께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의 대학살만행을 보여주는 전진장으로 들어섰다.

미제의 조선침략에서 가장 참혹한 제인의 흔적을 남긴 3년간의 조선전쟁, 미제가 우리 인민앞에 저지른 수많은 죄악들중에서 가장 야수적이고 미미한 죄악이 어떤것이며 여기서 우리가 미국과의 피의 결산을 반드시 치르어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전진장에서 참관자들은 선통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다.

수십수백명도 더 보았지만 그때마다 가슴속에 계급적 증오심을 더해주는 사진자료들과 전진물들을 가리키며 강사 위정복동무는 참관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복도의 인종증오사상과 반동적인 인종증오로 결여된 미제침략자들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인간의 두뇌를 가지고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치명적인 만행을 감행하였습니 다.》

신진군을 비롯하여 공화국 북부지방의 일상적적정지역에서 미제의 학살만행에 대한 감상의 해설은 참관자들의 피를 끓게 했다.

산 사람의 머리엔 대못을 박고 사지를 찢어죽이는 동미제는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고 차마 눈뜨고 볼수 없는 야수적인 방법으로 인민들을 학살하였으므로 그것을 페락으로 하였다.

살인귀들에게는 천부지런이름도 《적》이었다고 하면서 장사선원리 반나무꾼 회악상

중앙계급교양판을 찾아서



수상평의 피의 거울을 절대로 잊지 말자

유물

수정도장

